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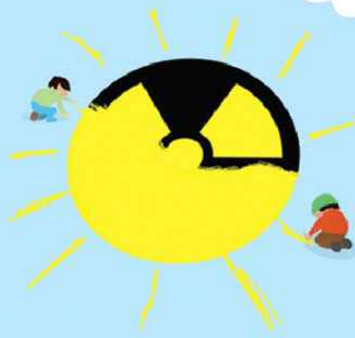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블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플물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업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플랫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촛불혁명, 목전이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어제 박근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변수는 바로 촛불시민의 거국적인 요구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직을 유지할 뜻이 없다고 조기 퇴진을 공언했으니가 진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는 혁명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진보 논객 김규항 씨가 쓴 글입니다. “정상 범주 언저리의 인간이 저런 소릴 했다면 다들 뒷목 잡고 쓰러져야 하겠지만, 상대는 박근혜 아닌가. 박근혜가 어떤 인간인가. 그 입에서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넘어간다는 뜻이다.”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일부 시민은 “비박도 흔들리니 박근혜를 쫓아낼 길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낭패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은 촛불시민 편이지, 박근혜 편이 아닙니다. 주말에 촛불이 식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박근혜의 잔피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징 하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12월 3일 또 한 번 큰 촛불의 바다가 펼쳐진다면 잠시 주춤 중인 비박은 더는 딴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방금 박근혜의 잔피라고 했습니다. 어제 발언은 검토해볼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기 퇴진을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만약 또 다시 입장을 내야한다면 '무조건적 사퇴'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많은 언론이 분석한 대로 어제 박근혜 발언은 야3당을 넘어 비박에게까지 형성된 탄핵 대오를 흐트러트리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이 꼼수는 오늘로 소멸될 것입니다.

시간은 촛불 시민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질기면 이기는 구도가 됐습니다. 12월 3일, 또 한 번 기적을 이뤄냅니다. 이정도도 안 하고 민주혁명을 기대했던 말입니까?

한편 김용민 브리핑이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오늘 아침 7시쯤 측정한 중간 결과인데요. 박근혜가 퇴진 결정을 국회에 일임한 것과 관련한 반응을 물었는데요. 97%는 박근혜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 답안을 선택했습니다. 토요일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9%는 그동안 나갔는데 이번에도 나간다 43%는 그동안 못 나갔는데 이번엔 나간다고 답했습니다. 촛불의 바다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30일(수) 1부 | "박근혜 아직 정신 못차렸다" 97%

[김용민 브리핑] 트위터 설문조사 (11.30 오전 9시)
 -"박근혜 정신 못 차렸다" 97% (4124명 응답)
 -"12.3 촛불집회 참석하겠다" 92% (4285명 응답)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걸으면 퇴진 공식화...탄핵 휘방' 속내 고스란히
 -박근혜 무슨 수 쓰든...大選, 내년 상반기 치른다
 -"190만 촛불 우렁" 시민들 분통... 촛불 더 거셀듯
 -어랏 미국 국무부가? "한국 촛불시위 지지한다"
 -'복사 붙여넣기 수준'...기본 벗어난 국정교과서

[뉴스듣기능력평가] 오늘은 언론통폐합 36주년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최초 박근혜 퇴진 요구 사설

-반기문도 "박근혜 건으로 국민 명예 실추돼" 비판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왁더독(Wag the dog)과 코스톨라니의 산책론

[공화국 논평] '탄핵 불가피' 주장 유승민에 대한...

박근혜도 인정한 '퇴진 필요성'

한국일보 퇴진 결정마저 국회에 떠넘긴 '공주'

대통령 박근혜가 촛불민심과 정치권의 퇴진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3차 대국민 담화의 형식인데, 아시다시피 본인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어제 담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국회의 합의'라는 비현실적 조건을 달아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의 의견이 일치한다.

경향신문 '탄핵 궤방' 속내 고스란히 드러내

이어서 경향신문 보도, 어제 대통령 박근혜의 담화 내용을 따져보면 시간을 벌기 위한 각종 복선이 깔려 있다. 우선 새누리당 비박계를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친박계는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마당에 여당 의원이 어떻게 탄핵에 찬성 하냐며' 비박계를 압박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 안정되게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개헌론자들을 탄핵 대열에서 끌어내고 야권 내 개헌 찬반여론을 분리하는 등 야권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박은 12월 9일 가서도 야당이 설득 안 되면 탄핵 투표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개헌론 주장하는 자가 역적이다

개헌론, 어떻게 보시나. 경향신문의 사실 소개한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민 의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국 사회의 권력이 된 재벌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개헌이라는 거대 이슈를 꺼내들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여야의 대선주자들과 여러 세력들이 대통령 중임제니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자기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박근혜를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개헌을 고리로 권력 연장을 꾀하는 중인데 야권 지도자 가운데 여기에 동조하는 자는 역적이 되겠다.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자.

東亞日報 "탄핵 부결되면 임시국회로 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오는 금요일에 의결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로 탄핵 소추가 부결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 사이 새누리당 '친박계'은 물론이고 '비박계'도 매장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론 앞에 취약한 비박을 전략적으로 흔들자는 것이다.

朝鮮日報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 불가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탄핵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치권에선 탄핵으로 갈 경우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야가 협상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 하야 시점과 차기 대선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정치권 원로들이 최근 제안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이 여야 논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분석인데, 촛불 시민들이 이런 야합 원하잖나. 이견 기성 체제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차 "사익 추구 안해", 뇌물죄 회피용

박근혜 메시지의 또 다른 축 "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종 비리 범죄에 대한 거듭된 부정이라 하겠다. 대통령 박근혜는 어제 담화에서 최순실의 비위 행각과 자신은 무관함을 호소했다. 박근혜는 "정치인생 18년 동안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향후 특검에서도 이런 방어논리를 펴면서 '제3차 뇌물혐의'에서 벗어나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모든 신문이 보는 시각.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

東亞日報 시민들 분통, 주말 촛불 더 거셀 듯

박근혜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로 국민의 분노는 더 끓어올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6차 촛불집회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망은 동아일보가 비중 있게 실었다. 매주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6차 촛불 집회를 여는 금요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했다.



오·늘·을·읽·는·책
당새마을의 꿈 연현조 지
마오쩌둥의 사상과 위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출간 즉시 판금조치와 함께 전량 회수된 일화로 유명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국내에 소개되고 2년 후 국내에 소개되는 두 번째 작품이자 연현조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최고로 꼽는 『당새 마을의 꿈』이 발표됐다. 무엇이, 왜 연현조를 금지된 작가로 만들었는가?

국민일보 美 “한국 시위지지, 그게 민주주의”

미국 정부가 “한국민의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밖으로 나가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며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뒤집어 볼 때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

일침 놓는 김현웅

경향신문 법무부 떠나며 “민주신불립” 일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임식을 열고 장관직을 마무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민주신불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윗사람이 신임을 받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다. 윗사람은 누구고, 아랫사람은 누구겠나. 이미 김프라이드에서도 소개했지만, 황교안 총리에게 문자로 해고하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당시 격분했다.

세월호, 그날의 진실

한국일보 “세월호 그날,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민들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기억을 온라인 공간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그 날 입은 옷, 7시간 동안 자신이 있던 장소의 풍경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저도 한참 전에 이런 비슷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었는데, 시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왜 대통령 박근혜와 정부관계자들만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되물음이다. 시민들의 기억노트 가 저장된 곳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프로젝트 사이트다.

한겨레 “대통령이 의식을 잃는 순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세월호 7시간’은 그런 경우는 아닐까. 이를 우려하고 있는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의 기사를 살펴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대장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수면내시경을 위해 마취제를 투약하면 한두 시간 정도 깊은 무의식 속으로 빠지는데, 짧지만 이 순간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가 된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5년간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단 몇 시간이라도 심각한 상황으로 변질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7시간은 혹시 무의식 상태일까? 이야기를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필귀정 쓰레기 교과서

한겨레 ‘복·불 수준’의 저질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에 대해 완성도가 떨어져 교육현장에서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용자가 엄연히 다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문단 전체, 문장 표현까지 같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교과서 편집의 비전문성도 엿보이는 등 기본 문법도 지켜지지 않았다.

朝鮮日報 새누리도 국정교과서 두 손 들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단일 배포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당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로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또 다시 기로에 선 대한민국”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하는 오늘의 칼럼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또 다시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행태는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을 능가하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세월호 구조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에 속하지만, 이후 진상규명은 국회의 임무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족들 앞에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했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세월호는 교통사고”, “좌파단체 색출하자”,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등의 막말을 쏟아내면서 유족과 국민 요구를 묵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공식 추대한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당선되었고 또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우’로 내세운 감독, 기획, 연출자는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매년 수백조 국가 예산과 수천개의 중요 직위를 전리품처럼 이용했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취임 직후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언이라도 한마디 한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는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표, ‘창조경제’가 비선 실세들의 ‘돈벌이 잔치’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창조경제’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헛소리”라는 지적을 했을 때,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입장이었나?”